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 문제

정 연 수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 I. 서 론
- II.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도덕
및 역사 교과서 분석
- III. 한국사상의 연원 재탐색과 중등 교
과서 집필 방안
- IV. 결 론

<논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의 서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단군신화를 비롯한 한국의 고대 금석문을 통해 한국사상의 연원을 재탐색함으로써 중등 교과서의 집필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내용은 중등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및 중학교 『역사1』과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는 동양사상의 연원을 유·불·도 삼교로 소개하고 있으며, 서양사상의 연원을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해서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무속과 결부시켜 샤머니즘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학교 『역사1』과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토테미즘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중등 교과서에서 유독 한국사상의 연원을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시 신앙으로 소개하는 것은 한국사상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신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우고 동물인 곰과 더불어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에 중등 교과서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단군신화와 연관하여 원시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군신화에서는 신인 환웅과 자연 사물인 곰이 만나 인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환웅과 곰이 이미 인간으로 전변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하늘의 신으로 상징되는 환웅과 땅의 자연 사물로 상징되는 곰과 인간으로 상징되는 단군은 본래부터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가 되는 원융한 존재인 것이다. 이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무속과 결부시켜 신과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 있는 존재 혹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천인합일(天人合一) 혹은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으로 해석하거나, 신이나 자연 사물과 유리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규정하면서 현세 지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군신화는 천지인(天地人)이 본래 원융한 존재이며, 인간 세상이 곧 이상 세계이고 이상 세계가 곧 인간 세계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인다.

무엇보다 단군신화에는 홍익인간의 도리(道理)로 세상을 화(在世理化)하여 신인상화(神人相化)에 이르는 정치사상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사상적 특징은 광개토태왕비문에서 성덕(聖德)의 도(道)로 천하를 다스린다(以道興治)는 고구려의 정치사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光明理世)는 뜻을 가진 혁거세(赫居世)의 존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의 정치사상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진흥왕순수비문에는 순풍(純風)의 도(道)로 세상을 화(化)한다는 정치사상이 담겨 있으며, 통일신라의 최치원은 이러한 순풍도화(純風道化) 사상의 연장선에서 유·불·도 삼교를 내함(內含)하는 풍류도(風流道)를 난랑비서문에서 주창하였다. 이처럼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사상적 특성은 홍익인간의 도리로 세상을 화(化)한다는 고조선의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일연의 『중편조동오위』로 해석하자면,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운 것은 편중정(偏中正)에 비유할 수 있고 천지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인 단군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겸중도(兼中道)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등 교과서가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고 사상사적 맥락에서 한국사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사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인문정신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백년대계가 마련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사상의 연원, 단군신화, 광개토태왕릉비, 진흥왕순수비, 난랑비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중학교 『역사1』, 고등학교 『한국사』.

I. 서론

본 논문은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의 문제를 제언함으로써 사상사적 맥락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할 수 있는 중등 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대 한국사상의 연원에서부터 근대 국학자들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상을 교육하는 것은 한국사상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상적 보편성을 창달하여 인문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근간이 된다.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는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등 교과서를 통해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기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턱없이 부족하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한국사상에 관한 내용은 대략 10% 내외의 분량이 할당되어 있으며,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내용은 1% 내외의 분량이 할당되어 있을 뿐이다.¹⁾ 또한 중학교 『역사1』과 고등

1)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되어 2019년 고등학교 2학년부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Ⅰ 인간과 윤리 사상’이 8% 내외, ‘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34% 내외, ‘Ⅲ 서양 윤리 사상’이 34% 내외, ‘Ⅳ 사회사상’이 24%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Ⅳ 사회사상’은 주로 서양 윤리 사상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양 윤리 사상에 비해 서양 윤리 사상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구성 비율은 과거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되어 2019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었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연수의 논문 「한국사상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방안 모색-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중

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성립에 관해 논하면서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내용을 소략하게 몇 마디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²⁾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내용을 무속신앙과 결부시켜 한국사상의 연원을 샤머니즘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토테미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³⁾ 이처럼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중등 도덕 교과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샤머니즘 위주로 설명하고, 중등 역사 교과와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토테미즘 위주로 서술함으로써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이해에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등 교과서에서 샤머니즘이든 토테미즘이든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시 신앙으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설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사상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한국사상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의 위와 같은 문제는 한국의 고대사상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선행연구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

심으로」, 『儒學研究』 44집, 2018, 참조)

- 2) 교육부의 2015 중등 역사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2018년에 중등 역사 교육과정이 재개정되어 20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9년까지는 2009 중등 역사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 고대사에 관한 내용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정연수의 「고대 우리 민족과 국가에 관한 중등 역사 교과서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100집, 2019, 참조)
- 3)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 및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중학교 『역사1』 교과서 9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면 위의 내용과 같다.

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사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중등 교육과정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되어 2019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및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되어 2020년까지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서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재탐색함으로써 중등 교과서의 집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상사적 맥락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이해할 수 있는 중등 교과서가 발행되고, 한국사상에 관한 중등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까지 혁신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II.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도덕 및 역사 교과서 분석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내용은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되어 2019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5종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출판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을 유교와 불교와 도가

4) 한국사상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도적 문제는 정연수의 논문 「한국사상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방안 모색-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儒學研究』 44, 2018)에서 다룬 바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에서는 한국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철학에 관한 공교육(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증지를 모아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고시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한국철학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성명서’를 2019년 6월 25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논문 뒤에 별도로 첨부한다.

사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을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은 단군신화의 내용을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무속신앙과 결부시켜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되어 2019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었던 5종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⁵⁾에서도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을 다루면서 ‘한국 고유 사상’을 무속신앙 위주로 소개한 바 있다. 2015 교육과정에 의해 새롭게 발행된 5종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3종의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무속신앙을 위주로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을 서술하는 문제가 있다.⁶⁾

자연현상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 생명과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나 동식물을 우상화하는 토테미즘이나 무속을 숭배하는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 신앙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선사시대부터 존재했으며 모든 종교와 사상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유독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만을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무속신앙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합당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만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을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 신앙으로 소개하고자 한다면, ‘동양과 서양의 윤리 사상의 연원’ 또한 마땅히 원시 신앙으로 소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사상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소개

5)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2013년 8월 30일 교육부 검정을 거쳐 ‘교학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지학사’, ‘천재교육’에서 출간한 5종이 있다.

6)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교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천재교과서’에서 출간한 5종이 있으며, ‘교학사’, ‘미래엔’, ‘씨마스’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무속신앙과 결부시켜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 않고, 원시 신앙의 보편성으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2015 교육과정에 의해 2018년 9월 14일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발행된 5종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 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학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이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대상을 숭배하는 경천사상이나 무속신앙 체계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정신의 원형을 탐색할 수 있는 단군신화에서는 경천사상과 무속신앙 등이 결합하여 홍익인간과 천인합일, 그리고 조화의 정신이 드러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격 수양을 강조하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며 조화를 중요시하는 것이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⁷⁾

‘미래엔’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무속신앙 등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민족의식의 원형이자 윤리 의식의 바탕이 되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무속신앙에서 경천사상과 천인합일 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무당의 굿을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었고, 집단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무속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하늘을 숭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식은 서로 사랑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되며, 유·불·도 삼교로 대표되는 외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본주의와 현세 지향적 가치관과 조화의 정신이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이 인본주의에 있다고 보는 근거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

7) 황인표 외 9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pp.32-34, 2019.3.1, 초판, 요약.

웅이나 곰이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염원했다는 것과 무속신앙에서 개인의 안녕과 인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세 지향적 가치관이 있다고 보는 근거로는 단군신화에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과 무속신앙에서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조화의 정신이 있다고 보는 근거로는 단군신화에서 환웅과 웅녀가 만나 단군을 낳았다는 것과 무속신앙에서 하늘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군신화와 무속신앙을 결부시켜 한국사상의 연원과 특징에 관해 서술하면서 한국 윤리 사상에서는 도덕적 삶을 강조한다고 부연하기도 한다.⁸⁾

‘비상교육’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을 무속신앙과 관련하여 서술하지 않고 있으며, 유교나 불교나 도가 등의 외래 사상이 전래되기 이전의 한국 고유의 사상은 단군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단지 단군신화에는 경천사상 및 조화의 정신과 인본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소략하게 언급하면서, 고구려나 신라의 건국신화 등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⁹⁾

‘씨마스’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을 점술이나 굿을 통해 초월적인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샤머니즘과 특정 자연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에서는 하늘이 인간을 수직적인 주종 관계 속에서 지배하지 않았고 천제(天帝)인 환인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을 통해 천인합일에 의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주체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신화의 홍익인간 정신을 인본주의와 평화주의로 해석하고 있으며,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근거

8) 정창우 외 9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35, 2019.3.1, 초판, 요약

9) 류지한 외 8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pp.31-32, 2019.3.1, 초판, 요약

로 세상의 삶을 긍정하는 현세 지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단군신화에 담긴 이러한 사상은 유교와 불교와 도가 사상이 전래되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화랑도에 서부터 동학에 이르는 한국사상을 이루고, 외래 사상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서술하기도 한다.¹⁰⁾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신라의 박혁거세신화 등의 건국신화에서 한국 고유 윤리 사상의 연원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서, 광개토태왕릉비문의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단군과 주몽과 박혁거세의 출생이 모두 하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과 땅을 상징하는 웅녀의 조화로 인간을 상징하는 단군이 출생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화를 지향하는 정신이 내재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신화에서는 인간으로 상징되는 단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그밖에 자연 친화와 생명존중, 그리고 평화 애호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군신화에서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상을 법이나 권력이 아닌 도리로 교화한다는 재세리화(在世理化)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서술하는 특징이 있다. 단군신화의 이러한 사상은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문에 제시된 도리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以道興治) 사상과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신라 박혁거세의 광명이세(光明理世)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사상사적 맥락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한다. 한편, 신라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풍류도에는 여러 사상을 포섭하는 조화의 정신이 담겨 있으며 화랑도의 정신적 기반이 된다고 서술하면서, 원효와 지눌과 이이 및 근대 신흥 종교의 사상에서도 이러한 조화의 정신이 드러난다고 소개하

10) 박찬구 외 5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씨마스, pp.41-42, 2019.3.1, 초판, 요약

고 있다.¹¹⁾

위와 같이 2015 교육과정에 의해 ‘교학사’와 ‘미래엔’과 ‘씨마스’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무속신앙과 결부시켜 한국사상의 연원을 서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비상교육’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무속신앙을 위주로 서술하지 않고 건국신화를 통해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그 내용이 상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무속신앙이 아닌 건국신화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면서 나머지 4종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달리, 사상사적 맥락에서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문제는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소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중등 역사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조선이 세워지기 이전, 선사시대부터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 신앙이 존재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샤머니즘을 위주로 소개한 것과 달리 토테미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중등 역사 교과서에서도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원시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를 바 없다.

11) 변순용 외 10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pp.30-32, 2019.3.1, 초판, 요약.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이이가 이(理)와 기(氣)의 조화를 강조한 것도 풍류도에서 말하는 조화 정신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기(理氣)가 불리(不離)이면서 부잡(不雜)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자 이래 조선 유학자들이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이만을 지목하여 이기(理氣)의 조화를 강조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이이가 이기(理氣)의 관계를 논하면서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주장한 것은 본래 이기(理氣)는 불리부잡(不離不雜)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무위한 이(理)가 기(氣)를 오묘하게 주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다.

9종의 중학교 『역사1』 교과서에서는 출판사마다 단군신화의 내용에 관한 서술에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었다는 것을 통해 환웅 부족으로 상징되는 우월한 특정 집단이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환웅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을 통해 고조선이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유행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곰이 인간의 몸을 얻어서 웅녀가 되고 환웅과 웅녀가 만나 단군을 낳았다는 것을 통해 천손임을 자부하는 환웅 부족이 곰이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고조선이 발전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단군왕검’이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의 ‘왕검’이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통해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밖에 단군신화가 국란을 겪을 때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²⁾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출판사마다 단군신화의 내용에 관한 서술에 다소 편차가 있다. 그러나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같은 맥락에서 단군신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토테미즘으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해석하는 경향은 차이가 없다.¹³⁾ 샤머니즘이나 토테미

12)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중학교 『역사1』 교과서는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좋은책 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에서 출간한 9종이 있다. 비교적 ‘비상교육’에서 발행한 중등 『역사1』 교과서(조한욱 외 10인, 2019년 3월 1일, 7쇄, pp.39-40)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의 역사적 상징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8종 교과서도 다소 편차가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미래엔’ 발행한 중학교 『역사1』 교과서에서는 토테미즘 위주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고조선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13)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에서 출간한 8종이 있다. 단군신화의 역사적 상징성에 관한 해석은 출판사마다 다소 편차가

즘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시 신앙인 만큼, 중등 교과서에서는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한국사상의 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의 사상적 연원을 탐색할 수 있는 한국 고대 금석문을 살펴보면서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의 집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Ⅲ. 한국사상의 연원 재탐색과 중등 교과서 집필 방안

이 장에서는 한국 고대사상에 관한 선행연구¹⁴⁾를 바탕으로 한국사상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비상교육’과 ‘지학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토테미즘 위주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을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고조선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 14)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연구는 자료 발굴의 한계 및 난해한 금석문 판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몇몇 학자들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철학계의 선행연구를 소개하자면, 류승국의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유교문화연구총서10, 유교문화연구소, 2009)과 이동준의 『한국사상의 방향 : 성찰과 전망』(유교문화총서 14, 유교문화연구소, 2011)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고 있다. 최영성은 『한국의 금석학 연구』(이른아침, 2014)와 『校註 四山碑銘』(이른아침, 2014)과 『韓國古代金石文選集』(문사철, 2015) 등에서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고대 금석문을 판독하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상과 문헌을 통한 한국사의 재발견』(문사철, 2018)에서 한국 고대 금석문에 담긴 사상적 의미를 고찰하는 등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근래 중국의 역사공정과 관련하여 요하 문명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한국 고대사상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이에 관한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를 소개하자면, 백종오의 『요하유역의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고조선문명 총서5, 지식산업사, 2018)과 우실하의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고조선문명 총서3, 지식산업사, 2019)이 있다. 이러한 역사학계의 연구로 인해 우리 민족의 기원인 동이족의 역사와 사상에 관한 철학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성기는 「夷夏關係를 다시 논함」(『東洋哲學研究』 73집, 2013)과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있어서 東夷文化의 지위」(『儒敎思想文化研究』 60집, 2015)에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동이문화의 재인식- 역사학과 고고학, 분자인류학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의 연원을 재탐색하고 중등 교과서의 집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의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 단군신화의 내용은 단군조선 당시의 사상과 문화를 사실(事實) 그대로 기술했다고 볼 수 없지만, 허구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허구라고 배척하는 양자의 관점을 지양하고,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다양한 맥락과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고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사상적 연원을 탐색하고 한국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과 우리 민족이 이룩한 인문정신문화를 탐색할 수 있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원의 간섭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몽항쟁(對蒙抗爭)의 시대적 사명과 불교적 관점에 의한 일연의 사관(史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는 『위서(魏書)』를 인용하여 단군왕검이 조선(朝鮮)을 개국한 시기를 중국의 요(堯) 임금과 동시대로 설정하고 단군조선의 흥망을 중국의 역사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중국과의 국제 관계를 고려한 시대적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또한 조동종 계통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¹⁶⁾를 저술한 일연이 단군신화

여」(『東洋哲學研究』 100집, 2019)에서 분자인류학을 통한 과학적 방법으로 동이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밖에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안승우는 「眞庵 李炳憲의 東夷 인식」(『동아시아 문명의 기원과 동양철학적 사유』(『東洋哲學研究』100집, 2019)에서 동이 문제에 관한 근대 국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15) 『三國遺事』, 「紀異第一」,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원주 : 經云無葉山, 亦云白岳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원주 : 唐堯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원주 : 今西京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원주 : 一作方)忽山又今旆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16) 일연이 『중편조동오위』를 저술한 이후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매월당 김시습

에 등장하는 환인(桓因)을 인도의 천신(天神)이자 호법(護法)과 호국(護國)을 상징하는 제석(帝釋)¹⁷⁾이라고 원주에 표기하는 것에서도 단군신화에 불교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재해석하면서 중등 교과서의 집필 방안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원주 : 제석(帝釋)을 이른다.)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은 수시로 천하(天下)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구(貪求)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白)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이내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며 다스리도록 보냈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원주 : 태백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곳을 신시(神市)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맡아 관장하였으며,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도리(道理)로 화(化)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인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때 신(환웅)이 영험한 쑥 한 줌과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얻어서 먹고 금기한 지 21일 만에 곰은 여인의 육신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해 사람의 육신을 얻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매번 단수(檀樹)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기원하였다. 환웅이 이내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였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하기를 ‘단군왕검’이라 하였다.”¹⁸⁾

이 『십현담요해』를 저술하고 일제강점기에 만해 한용운이 『십현담주해』를 저술하면서 조동종의 종풍을 이어가고 있다. 조동오위에 관한 일연과 김시습과 한용운의 저술에서는 당시 시대적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17) 인도 불교에서 유래된 제석(桓因帝釋 : Sakra-Devanam Indra)은 고려 시대 민간 무속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老巫篇」, 참조)

18) 『三國遺事』, 「紀異第一」, “古記云, 昔有桓因(원주 : 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천손으로 상징되는 환웅 부족을 우월한 집단으로 해석하면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관해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환웅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인간 세상을 수직적으로 지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웅이 인간 세상을 탐구(貪求)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우열관계 속에서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천부인(天符印) 3개¹⁹⁾를 가지고서 인간 세상에 신시(神市)를 세웠다는 내용을 근거로 단군신화에 현세 지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신의 이상 세계를 주축으로 하는 다른 신화들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단군신화에 현세 지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또한 널리 천하를 이롭게 한다(弘益天下)고 표현하지 않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弘益人間)고 표현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인간 세상을 중심으로 단군신화가 구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웅이 인간 세

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원주 : 卽太伯, 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 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 ‘壇君王儉.’

- 19) 동아시아 신화의 유형으로 볼 때, 천부인(天符印) 3개는 거울과 칼과 방울을 의미하는 듯하다. 천부인 3개를 무속의 도구로 해석하는 선행연구도 있으나, 홍익인간을 주창하는 단군신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자면 환인이 무속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3개의 물건을 환웅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천부인 3개는 거울이 상징하는 맑은 지성과 칼이 상징하는 의로운 위엄과 구슬이 상징하는 도야된 정신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천부인 3개를 인간에 내재된 천성(天性)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상징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상을 탐구(貪求)하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웠다는 내용을 통해 단순히 인간 세상을 중심으로 단군신화가 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인간이 바라는 이상 세계인 신시가 인간 세상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에 단군신화에 현세 지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상 세계가 곧 인간 세상이며 인간 세상이 곧 이상 세계여서 이상 세계와 인간 세상이 서로 원융하게 존재한다고 그 상징성을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인다.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단군신화에서 환웅이는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고 곰은 21일 만에 여인의 몸을 얻어서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곰 토테미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경천(敬天)사상을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대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단군신화의 이러한 내용을 무속의 샤머니즘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단군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접신(接神)을 통해 인간이 신인 환웅과 하나가 되길 바라거나 인간이 동물인 곰을 우상화하여 숭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신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스스로 바라였고, 곰도 인간의 몸을 얻기를 스스로 기원하였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내용은 인간이 신을 지향하는 샤머니즘이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 신앙의 성격과 전혀 다르다고 하겠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는 환웅과 웅녀가 만나서 단군이 탄생했다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혹은 천지의 조화에 의한 천인합일(天人合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 중심으로 구성된 다른 신화들과 상대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해석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는 만물이 창조된 시원에 대한 논의 없이 곧 바로 하늘의 신을 상징하는 환웅과 땅의 자연 사물을 상징하는 곰과 인간을 상징하는 단군이 원융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 신인

환웅은 스스로 인간으로 전변했기 때문에 신이자 인간이며, 곰도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기를 염원하여 웅녀로 전변했기 때문에 자연 사물이자 인간이다. 인간인 단군은 부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의 신이 되고, 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땅의 자연 사물이 된다. 즉 하늘의 신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며, 땅의 자연 사물과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으로 진화된 것도 아니며, 별개의 하늘과 땅이 조합하여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단순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규정하거나 인간의 존재를 천지의 조화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서 천인합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은 하늘의 신과 땅의 자연 사물과 인간의 존재가 본래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원융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한편, 무엇보다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살펴보면서 주목할 점은 바로 세상을 도리(道理)로 화(化)한다는 정치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리의 실체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化)한다는 것은 교화(教化)에서부터 감화(感化)와 변화(變化)와 진화(進化)와 신화(神化)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상징성은 삼국 시대의 정치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광개토태왕비 문에는 고구려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옛적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창건하였다. 태어난 곳은 북부여(北夫餘)이다. (추모왕은) 천제(天帝)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딸이다. 알을 깨고 강생(降生)하였으며, 날 때부터 성덕(聖德)이 있었다. …… (추모왕은) 세자(世子)인 유류왕(儒留王)에게 도(道)로써 천하를 다스리라고 유언하였다. 대주류왕(大朱留王)이 대를 이어 유지를 받들었는데, 그의 17세손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대에 미쳤다. …… (광개토태왕이) 불의(不義)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들이 각자 생업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창성하였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잘 익었다.²⁰⁾

광개토태왕비문에서는 추모왕이 신의 정기(精氣)를 받아서 태어난 신인상화(神人相化)의 존재이며, 도(道)로써 천하를 다스린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광개토태왕비문에는 도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고구려의 정치사상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의 실체는 곧 성덕(聖德)을 의미한다. 성덕의 도로 나라를 다스려 불의한 무리를 물리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추모왕의 유지이며, 광개토태왕에 이르러 이러한 유업(遺業)을 이루었다는 것이 광개토태왕릉비문의 요지다. 이처럼 고구려의 정치사상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긴 도리(道理)로 세상을 화(化)한다는 단군조선의 정치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사상적 특징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赫居世)의 존호가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²¹⁾과 일맥상통하는데, 아래와 같은 신라의 진흥왕순수비문에서도 광개토태왕비문과 같은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다.

무릇 순풍(純風)이 불지 않으면 세상의 도(道)가 진리에 어긋나게 되고 현묘하게 화(化)하여 널리 퍼지지 않으면 사특함이 서로 다투게 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제왕이 연호를 세움에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짐(朕)은 역수(曆數: 정해진 운명)가 나에게 당함에, 우러러 태조의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임금의 자리를 계승하였으니, 나 자신을 삼가고 스스로 신중함을 기하였고 천도(天道)를 어길까 두려워하였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명의 기록을 열어 보이니, 그윽한 가운데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와 통하였으며 부록(符籙)에 응하고 천산(天筭)에 합치되었다. 이에 따라 사방에서 자기 나라의 국경을 맡겨와서 백성과 영토를 널리 얻게 되었고, 이웃 나라가 신의(信義)를 맹세하여 화호(和好)의 사절이 서로 통하게 되었다. 허리를 굽혀 옛 백성과 새 백성을 정성껏 키웠는지 스스로 헤아려보니, 오히려 도화(道化)가 두루 미치지 못하여 아직 은혜를 베풀어지지 않았다고 이른다. 이에 세

20) 『廣開土太王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德.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逕至十七世孫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掃除不口,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豐熟.”(최영성, 『韓國古代金石文選集』, 문사철, pp.12-19, 참조)

21) 『三國遺事』, “因名赫居世王. (원주 : 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차 무자년(진흥왕 29년, 568) 가을 8월에 관할 국경을 순수(巡狩)하여 민심을 탐방하여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한다.²²⁾

위와 같은 진흥왕순수비문을 살펴보면, 신라 진흥왕의 정치사상은 자신을 다스리는 수신(修身) 공부를 근간으로 천도(天道)를 지켜 백성들에게 도화(道化)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흥왕은 도로써 나라를 다스림에 천신(天神)과 지신(地神)과 통하는 신인상화(神人相化)를 이루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도(道)의 실체는 순풍(純風)으로 세상을 화(化)하는 것인데, 진흥왕순수비문에서 말하는 순풍의 도는 후대 통일신라의 최치원이 남긴 아래의 난랑비서문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고 이른다. 가르침을 베푸는 근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로 삼교를 포함하고 만인을 응접하여 교화한다. 또한 들어오면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魯司寇)의 종지와 같고, 무위(無爲)한 일에 처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周柱史)의 종지와 같으며,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석가(竺乾太子)의 교화와 같다.²³⁾

최치원은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道)를 풍류(風流)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순풍(純風)의 도(道)로 현묘하게 세상을 화(化)한다는 진흥왕순수비문

22) 『眞興王巡狩碑(磨雲嶺碑)』, “夫純風不扇, 則世道乖眞, 玄化不敷, 則耶爲交競. 是以, 帝王建號, 莫不修己以安百姓.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筭.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忖撫育新古黎庶, 猶謂道化不周, 恩施未有. 於是, 歲次戊子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精誠, 才超察厲, 勇敵強戰, 爲國盡節, 有功之徒, 可加賞爵物, 以章勳效.”(최영성, 『韓國古代金石文選集』, 문사철, pp.68-73, 참조)

23) 『鸞郎碑序』,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최영성, 『譯註 崔致遠全集』2, 亞細亞文化社, 1999, p.315, 참조)

의 순풍도화(純風道化)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²⁴⁾

난랑비서문에서 풍류도가 유·불·도 삼교를 포함(包含)한다는 것은 삼교의 종지를 밖에서부터 받아들여 외함(外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삼교의 종지를 안으로 본래 갖추고 있어서 내함(內含)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⁵⁾ 이처럼 풍류도에는 유·불·도 삼교의 종지가 본래 내재하기 때문에 삼교의 시원과 맥락이 각기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사상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류도는 진흥왕 순수비문의 순풍도화 사상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연원은 홍익인간의 도리로 세상을 화한다는 고조선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단군신화의 사상적 상징성을 일연의 『중편조동오위』로 해석해 보자면, 환인이 인간 세상을 탐구하여 인간 세상에 신시(神市)를 세운 것은 진인(真人)이 정위(正位)에 머물지 않고 편위(偏位)로 나아감으로써 편위 가운데 정위가 있다는 편중정(偏中正)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인 환웅과 자연 사물인 곰이 인간으로 전변하여 탄생한 단군이 이

24) 최영성의 「최치원의 풍류사상 이해와 그 기반 -진흥왕순수비 및 『주역』 관괘(觀卦), 손괘(巽卦)와 관련하여」(『한국철학논집』 40, 2014)에서는 진흥왕순수비에 제시된 순풍(純風)과 현화(玄化)의 의미를 난랑비서에 제시된 풍류도(風流道)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주역』의 관괘와 손괘에 등장하는 풍(風)의 사상적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25) 최영성의 「崔致遠의 玄妙之道와 儒·仙思想」(『한국고대사탐구』 9집, 2011, p.84)에서는 “포함삼교’ 녀 자는 자칫하면 풍류도가 삼교사상의 핵심 요소를 수용하여 종합한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저 외래사상을 수용, 섭취하거나 취합하기만 했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包含’은 ‘包涵’과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包含은 ‘본래부터 그 속에 들어 있다’는 뜻이고 包涵은 ‘밖으로부터 널리 모아서 싸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포함의 의미를 內含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최영성의 연구는 풍류도에 관한 근대 국학자들의 사상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난수의 「근대 전환기 ‘風流’ 인식으로 본 한국사상의 원형 문제」(『陽明學』 51, 2018)에서는 신채호와 정인보와 최남선과 안재홍 등 근대 국학자들이 최치원의 풍류도를 통해 한국사상의 원형을 규명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상 세계와 인간 세상을 넘나들며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 것은 이상 세계인 정위와 인간 세상인 편위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정위와 편위를 넘나드는 겸중도(兼中道)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군신화를 비롯한 한국 고대 금석문들을 통해 한국사상의 연원과 그 사상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향후 중등 교과서에서는 한국사상의 연원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시 신앙이 아닌,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한국사상에 관한 교육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사상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는 교육은 고대 한국사상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상적 보편성을 확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문정신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상의 연원에서부터 근대 국학자들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에 한국사상에 관한 교육제도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중등 교과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사상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서술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1% 내외로 구성된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단군신화의 내용을 무속신앙과 결부시켜 샤머니즘 위주로 서술

하는 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는 동양사상의 연원을 유·불·도 삼교로 소개하고 서양사상의 연원을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으로 소개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또한 중학교 『역사1』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토데미즘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중등 교과서에서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시 신앙으로 한국사상의 연원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국사상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단군신화를 비롯한 한국의 고대 금석문을 통해 한국사상의 연원을 재탐색하면서 중등 교과서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접신(接神)을 하거나 동식물에 해당하는 자연 사물을 숭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단군신화에서 신인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세우고 동물인 곰과 더불어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나 토데미즘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에 비록 원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단군조선의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등 교과서에서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원시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는 신인 환웅과 자연 사물인 곰이 만나 인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환웅과 곰이 이미 인간으로 전변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하늘의 신으로 상징되는 환웅과 땅의 자연 사물로 상징되는 곰과 인간으로 상징되는 단군이 본래부터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원융한 존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무속과 결부시켜 신과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 있는 존재 혹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천인합일(天人合一) 혹은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으로 해석하거나, 신이나 자연 사물과 유리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규정하면서 현

세 지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단군신화는 천지인(天地人)이 본래 원융한 존재이며, 인간 세상이 곧 이상 세계이고 이상 세계가 곧 인간 세계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상징성은 신인 환웅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인간 세상에 세운 도시를 신시(神市)라고 명명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단군신화에서 주목할 점은 홍익인간의 도리(道理)로 세상을 화(在世理化)하여 신인상화(神人相化)에 이르는 정치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군신화의 사상적 특성은 광개토태왕비문에서 성덕(聖德)의 도(道)로 천하를 다스린다(以道興治)는 고구려의 정치사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光明理世)는 뜻을 가진 혁거세(赫居世)의 존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의 정치사상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진흥왕순수비문에는 순풍(純風)의 도(道)로 세상을 화(化)하는 정치사상이 담겨 있으며, 통일신라의 최치원은 이러한 순풍도화(純風道化) 사상의 연장선에서 유·불·도 삼교를 내함(內含)하는 풍류도(風流道)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사상적 특성은 홍익인간의 도리로 세상을 화(化)한다는 고조선의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단군신화의 상징성을 일연의 『중편조동오위』로 해석해 보자면, 환웅이 인간 세상에 신시(神市)를 세운 것은 편중정(偏中正)에 비유할 수 있고 천지를 넘나들 수 있는 단군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겸중도(兼中道)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등 교과서에서는 한국사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상의 연원을 탐색하고, 사상사적 맥락에서 한국사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길 바라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투고일 : 2020.01.27. / 심사완료일 : 2020.02.20. / 게재확정일 : 2020.02.26.

<참고문헌>

<2018년 9월 14일 교육부 검정,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
황인표 외 9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년 3월 1일, 초판
정창우 외 9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9년 3월 1일, 초판
류지한 외 8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9년 3월 1일, 초판
박찬구 외 5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9년 3월 1일, 초판
변순용 외 10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19년 3월 1일, 초판

<2012년 8월 31일 교육부 검정, 중학교 『역사1』 8종>
양호환 외 7인, 중학교 『역사1』, 교학사, 2019년 3월 1일, 7쇄
이문기 외 19인, 중학교 『역사1』, 동아출판, 2019년 3월 1일, 7쇄
정선영 외 8인, 중학교 『역사1』, 미래엔, 2019년 3월 1일, 7쇄
조한욱 외 10인, 중학교 『역사1』, 비상교육, 2019년 3월 1일, 7쇄
한철호 외 11인, 중학교 『역사1』, 좋은책 신사고, 2018년 3월 1일, 6쇄
정재정 외 10인, 중학교 『역사1』, 지학사, 2019년 3월 1일, 7쇄
주진오 외 13인, 중학교 『역사1』, 천재교육, 2019년 3월 1일, 7판
김덕수 외 13인, 중학교 『역사1』, 천재교과서, 2019년 3월 1일, 7판

<2013년 8월 30일 교육부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권희영 외 5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8년 3월 1일, 5쇄
김종수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9년 3월 1일, 2판 5쇄
왕현중 외 6인,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2018년 3월 1일, 5쇄
최준채 외 4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8년 3월 1일, 4판 1쇄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8년 3월 1일, 5쇄
도면희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8년 3월 1일, 5쇄
정재정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8년 3월 1일, 5쇄
주진오 외 8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8년 3월 1일, 5판

<원전류>

『三國遺事』, 「廣開土太王碑」, 「眞興王巡狩碑(磨雲嶺碑)」, 「鸞郎碑序」

<연구논문>

- 김성기, 「夷夏關係를 다시 논함」, 『東洋哲學研究』 73, 2013
- 김성기,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있어서 東夷文化의 지위」, 『儒敎思想文化研究』 60, 2015
- 김성기, 「동이문화의 재인식- 역사학과 고고학, 분자인류학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東洋哲學研究』 100, 2019
- 안승우, 「眞庵 李炳憲의 東夷 인식」,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과 동양철학적 사유』, 『東洋哲學研究』 100, 2019
- 이난수, 「근대 전환기 ‘風流’ 인식으로 본 한국사상의 원형 문제」, 『陽明學』 51, 2018
- 정연수, 「한국사상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방안 모색-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44, 2018
- 정연수, 「고대 우리 민족과 국가에 관한 중등 역사 교과서의 문제」, 『東洋哲學研究』 100, 2019
- 최영성, 「崔致遠의 玄妙之道와 儒·仙思想」, 『한국고대사탐구』 9, 2011
- 최영성, 「최치원의 풍류사상 이해와 그 기반 -진홍왕순수비 및 『주역』 관괘(觀卦), 손괘(巽卦)와 관련하여」, 『한국철학논집』 40, 2014
- 최영성, 「한국유교의 기원과 동이문화(東夷文化)」, 『한국철학논집』 57, 2018

<단행본>

- 류승국,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유교문화연구총서10, 유교문화연구소, 2009
- 백종오, 『요하구역의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 고조선문명 총서5, 지식산업사, 2018
- 우실하,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 고조선문명 총서3, 지식산업사, 2019
- 이동준, 『한국사상의 방향 : 성찰과 전망』, 유교문화총서 14, 유교문화연구소, 2011
- 최영성, 『한국의 금석학 연구』, 이른아침, 2014

- 최영성, 『사상과 문헌을 통한 한국사의 재발견』, 문사철, 2018
최영성, 『譯註 崔致遠全集』2, 亞細亞文化社, 1999,
최영성, 『韓國古代金石文選集』, 문사철, 2015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성명서²⁶⁾>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에서는 한국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철학에 관한 공교육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중지를 모아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철학’ 교과를 신설하여 ‘한국철학’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라.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철학’을 배울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와 더불어 ‘한국사’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필수가 아닌 101개나 되는 선택 과목 중에서도 ‘한국철학’ 과목은 찾아볼 수 없다. 선진국가운데 이토록 자국의 ‘언어와 역사’ 교육은 중요시하면서 자국의 ‘철학’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없다. 이에 본 연구회는 ‘한국철학’ 교과를 신설하여 한국철학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동·서양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정비하라.

동서와 남북을 통합하고 세계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인문정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서양에 관한 철학교육이

26) 본 성명은 윤사순(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외 학계 종사자 145명, 정의화(전 국회의원) 외 일반사회인 661명, 이상성(홍대부고 교장) 외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42명, 김동근(성균관대 학인회 대표) 외 중·고등학생 및 대학·대학원생 700명으로 총 1552명이 동의하였고, 2019년 7월 15일 성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동·서양의 철학에 관한 내용이 ‘사회’와 ‘교양’ 영역의 여러 선택 과목들 속에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관계로 체계적인 철학교육이 불가능하다. 역사에 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초’ 영역에서 ‘한국사’를 공통 과목으로 배우고, ‘사회’ 영역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 철학에 관한 교육과정에서도 한국 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동·서양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정비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6월 25일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

Abstract

A Study on the Descriptions of the Origins of Korean Thought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 Jung, Yeon-Soo (Sung Kyun Kwan Univ. Visiting Professor)

In this thesis, the problems in the descriptions of the origins of Korean thought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were examined, the beginnings of Korean ideas were re-explored through ancient Korean inscriptions including the myth of Dangun, and the ways to writ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were investigated. The origins of Korean ideologies are found in the high school “ethics and thoughts” textbook, middle school “history 1” textbook and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of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In the high school “ethics and thoughts” textbook, the beginnings of Eastern ideas are introduced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those of Western ideas as ancient Greek thoughts and Hebraism. Then, regarding the origins of Korean ideologies, the myth of Dangun in Il Yeon's “Samgukyusa” tends to be connected to and described as shamanism. In addition, the middle school “history 1” and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have a tendency of explaining the beginnings of Korean thoughts as Korean Totemism on the ground of the story of a bear and a tiger in the myth of Dangun. This introduction of the origins of Korean ideologies as primitive beliefs which can be universally applied to anywhere in the worl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can make the specificity of Korean thoughts and the status of Korean ideas degraded. The myth of Dangun doesn't include humans' wishing for something from a god by being possessed with a spirit or worshipping natural objects of animals or plants. It is totally different from shamanism or Totemism that Hwanwoong, a god, and a bear wanted to live in the human world in the myth of Dangun. Accordingly, it should be avoided to interpret the beginnings

of Korean thoughts as primitive beliefs in connection to the myth of Dangu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Moreover, in the myth of Dangun, rather than a god and natural objects met and gave new birth to humans, Hwanwoong, a god, and a bear, a natural object, had been already transformed into humans and gave birth to Dangun. Hwanwoong, a symbol of heavenly god, and a bear, a symbol of natural object on the earth, and Dangun, a symbol of humanity, were harmoniously united beings that were essentially one and three, and three and one. Thus, what the myth of Dangun symbolizes must not be defined as that humans and the heaven in a vertical relation corresponded to each other and became one(天人合一) or as human-centered humanism isolated from gods or natural objects. Rather, it's more reasonable to describe that the heaven, the earth and humans(天地人) were originally in harmonious unity, and that human world was also an idealistic world, and an idealistic world symbolized human world. Its meanings can be inferred from that in the myth of Dangun, Hwanwoong, a god, built a city in the human world in order to benefit humans far and wide and also named it Sinsi(神市, a city of god). In addition, when the symbols of this myth of Dangun are interpreted with Il Yeon's "Jungpyeonjodongohwi",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meanings of Gyeomjungdo(兼中道) that Jeongwi(正位) and Pyeonwu(偏位) are Wonyungmu(圓融無碍). Above all, what's noteworthy for the myth of Dangun is that it includes the principle(道理) of Hongikingan, the political ideology to change the world(在世理化) to achieve Sininsanghwa(神人相化) through edification, influence, change and evolution.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 of this myth of Dangun is that it was developed into the political ideology of Goguryeo, that is, to govern the world with royal virtues'(聖德) Tao(道) (以道興治) as in the epitaph of Gwanggaeto the Great. Furthermore, as Hyeokgeoseo(赫居世)'s regnal name referring to ruling the world with bright light(光明理世) shows, its meanings can be seen in Silla's political ideology. The

epitaph of King Jinheung's monument of Silla includes the political idea of changing(化) the world with the Tao(道) of Sunpung(純風), and Choi Chi-won of unified Silla can be seen to have advocated Pungryudo(風流道) to imply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s the extension of Silla's Sunpungdohwa(純風道化) ideology in the prologue of Nanrang monument. In this way, the ideological features of Korean people and nations from the Three Kingdoms to Unified Silla can be seen to have originated from Gojoseon's idea of changing(化) the world with the principle of Hongikingan. If the secondary school textbooks are described later focusing on the uniqueness of Korean thoughts so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explore the beginnings of Korean thoughts and understand the context of ideological history, through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 far-sighted national policy to help Korean people and nation have an ideological identity and progress the culture of humanistic spirit will be able to be established.

Key words: origins of Korean thoughts, the myth of Dangun, Gwanggaeto the Great's monument, King Jinheung's monument, Nanrang monument, high school "ethics and thoughts", middle school "history 1", high school "Korean history".